



고양하천네트워크

고양시 하천 친구들

조류편 (2)





고양시하천에는 어떤 조류들이 살고 있을까요 ??





붉은머리오목눈이

흔히 뱀새라고도 하며 몸길이 약 13cm입니다. 몸의 윗면은 붉은 갈색이며 아랫면은 누런 갈색입니다. 암컷은 색이 연하며 부리는 굵습니다. 동작이 재빠르고 움직일 때 긴 꼬지를 좌우로 쓸듯이 흔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번식기 이외에는 보통 30~50마리씩 무리지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댑니다.



딱도요

몸길이 25~27cm이며 전체적으로 갈색 바탕에 크림색, 검정색 등의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비행 시 날개 가장자리의 흰색 띠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동작이 빠르고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풀 속에 숨어 있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왜가리

몸길이 91~102cm으로 한국에서 보는 왜가리과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등은 회색이고 아랫면은 흰색, 가슴과 옆구리에는 회색 세로줄무늬가 있습니다.
머리는 흰색이며 검은 줄이 눈에서 뒷머리까지 이어져 땡기깃을 이룹니다.
다리와 부리는 계절에 따라 노란색 또는 분홍색이 됩니다.



딱새

몸길이 약 14cm이며 수컷은 아랫면이 짙은 주황색이고 얼굴은 검은색입니다.
머리는 옅은 회색을 띠며 등과 날개는 흑갈색입니다.
날개에는 흰색반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암컷은 머리꼭대기에서 뒷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날개와 꼬리는 짙은 갈색입니다.





재갈매기

몸길이 56cm이며 몸 빛깔은 갈매기와 비슷하나 더 크고 아랫 부리에 붉은색 얼룩점이 있습니다. 다리는 분홍색이며 다 자란 새의 꽂지는 흰색이므로 갯이 갈매기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어린새에는 갈색 세로무늬가 있습니다. 날 때는 날개를 완만하게 규칙적으로 퍼덕여서 직선적으로 날 때가 많습니다.

모니터링 참여

고양자연생태연구회
더불어성사천
어린이식물연구회
에코코리아
하천생태동아리

- 2019년 고양시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



고양하천네트워크